



삼성전자
파업
2~4면

계급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6~8면

현대중공업-기아차
노조도 성과급 인상
요구 9면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반대
투쟁 10면

삼성에 원청 책임 요구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
11면

이란
전쟁
12, 11면



삼성전자 파업을 놓고

당신은

관련 기사 2~4면

누구 편인가?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지배계급 전체가 쌍심지 세우며 반대하고 나서는 데도 노동계급 기반 좌파는 굼뜨다

5월 18일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그들은 파업이 강행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계는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전자 파업이 그토록 파괴력이 있다는 주장은, 뒤집어 말하면,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업주들은 파업이 실제로 벌어질까 봐 두려움과 적대감을 드러낸다. 삼성 회장 이재용이 대국민 사

과와 “삼성 한 가족” 발언을 한 것도 그래서다.

반도체 노동자들이 죽어나갈 때 모르쇠로 일관하던 이재용이 “삼성 한 가족” 발언을 하는 것은 역겹기 짝이 없다. 이재용의 발언은 반드시 파업을 막아 달라는 대정부 압박이기도 하다.

지배계급은 ‘슈퍼 사이클’에 올라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라인이 중단되고, 삼성전자 투쟁에 자극받아 다른 사업장 임금 투쟁들이 확산될까 봐 걱정한다.

〈조선일보〉 등은 현대·기아차, 현대중공업, 네이버, 카카오, 유플러스 등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N퍼센트 성과급” 요구의 빚장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사용자·정부·법원 삼각 편대: “파업은 안 된다”

노사 모두에 협상 타결을 촉구하지만, 파업만은 안 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14~15일 노동부 장관 김영훈은 노조와 사측을 오가며 교섭을 중재했다.

그러자 1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정부가 파업과 협상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노골적인 국가 탄압이다. 재계의 공동성명은 긴급조정권 발동 쪽으로 가라고 썰기를 박으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SNS에 글을 올려 사용자를 편들었다. “노동권 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 “헌법상 모든 기본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재판장 신우정)도 삼성전자 사용자 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사용자 편을 들었다.

파업에 들어가도 중요 공정은 정상 조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 노조 지도부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대통령 말과 달리, 긴급조정권이나 법원 판결은 파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아무튼, 정부와 법원, 국내외 사용자들이 5월 18~19일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파업을 막을 이중삼중의 잠금 장치들을 쏟아 냈다.

그런데 이처럼 지배자들 전체가 ‘계급 대 계급’ 전선을 형성해 총공세를 펴고, 정부와 법원이 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민주노총·진보당·정의당 등 노동운동과 좌파 대부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을 분명하게 편들지 않고 있다.(이에 대한 비판은 4면에 실린 [성명]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 이재명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규탄한다’를 보시오.)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준다는 주장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긴급조정권 검토는 개혁 배신의 신호탄

긴급조정권은 1961년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더 정확하게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3년 도입한 권위주의적 노동 통제 제도다.

그후 긴급조정권은 딱 4차례 발동됐다. 박정희는 1969년 국영기업이었던 대한조선공사(현 HJ중공업) 78일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두 번째 긴급조정권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현대자동차 파업에 발동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노무현 정부가 행사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한해에 두 차례나 강제로 파업을 종료시켰는데, 각각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조종사 파업이었다.

네 가지 사례는 공통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잘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분쇄함으로써 본보기를 보이려 했다는 점, 또 하나는 민주적 권리 억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신호탄이었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1969년 이후 사회 통제를 더 강화했고, 3년 만에 폭압적인 유신 체제를 수립했다.

임금 인상 투쟁의 확산

임기 초 하나회 해체 등 몇몇 개혁 조치와 포퓰리즘적 연사(“어떤 동맹[한미동맹]을 가리켰음]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로 높은 지지를 받았던 김영삼 정부는 현대차 파업을 파괴하면서 개혁적 외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부터 지지층 배신을 노골화하고 탄압을 강화했다. 두 차례의 긴급조정권 발동 사이에 전용철·홍덕표 농민이 경찰의 살인 진압으로 사망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한미FTA 강행 과정에서 반대 운동을 군대까지 동원하며 탄압했다. 노동약법을 추진했고, 한국노총 김태환,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등이 사측과 경찰에 의해 살해됐다.

이재명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협박은 그래서 시사적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신생 노조이지만, 경제의 장기 침체 속에서 고성과를 내는 몇 안 되는 대기업에서 급성장한 초대형 노조다.

성과급 인상 요구의 도화선은 SK하이닉스의 노사 합의였지만,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거부 때문에 투쟁으로 SK에 버금가는 임금 인상을 이뤄 내려 한다.

삼성전자 투쟁의 성패는 성과가 좋은 IT 업종, 조선 업종 등으로, 또 반도체 산업의 하청·협력 업체 등의 임금 인상 요구로 변질 수 있다. 이미 그러기 시작했다(9면에 실린 기사를 참조하시오).

지배자들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라인이 중단되고, 이번 투쟁이 다른 사업장 임금 투쟁들로 확산될까 봐 걱정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자 투쟁이 실제로 확산되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윤석열 친위 군사 쿠데타 지지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 계급 협력) 노선과도 충돌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 유가 통제 등 일부 친노동 개혁과 친기업 정책을 실용주의적으로 조화시키며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를 유지해 왔다.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은 노동자-사용자 간 '산업 평화'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는 주식시장 활황이 큰 도움이 됐는데, 국내외 주주들이 주식 호황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파업에 결코 호의적일 리 없다.

더욱이 기업주들은 불안정한 경제적·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노동자 파업에 극도로 적대적이다.

그 반대 편에는 경제 침체기에 고물가로 생계비 위기가 만연해 임금과 관련한 노동계급의 불만이 크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불리한 협상

타결을 촉구하면서 삼성전자 노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와 원만하게 지내 온 재계가 한입으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재계의 오랜 '베프'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친노동 기조"가 국가 경제를 말아먹을 위험 상황을 초래했다며 호들갑을 떠는 배경이다.

이재명 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발언이 시사하는 것은, 개혁 정부라는 외양이 결국은 심화하는 위기 속에서 노동자 투쟁으로 깨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ws.or.kr/online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아침에 읽는 <노동자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공개 토론회 영상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 극우와 파시즘 분석과 과제
-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70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청와대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지지 행동이 열린다

5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지지한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위협 중단하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동자연대, 노동자투쟁, 기아자동차 현장조직 '투쟁과연대' 등 노동단체들과 마르크스주의 저술가인 임승수 작가, 이을재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공동대표 등이 함께 연명해 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선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장,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이을재 노동자전선 공동대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창배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소속 박정훈 고려대 학생 등이 발언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지지를 표하는 한편,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협하는 정



5월 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지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부를 규탄했다. 또,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에 연대가 확대돼야 함을 역설했다.

이을재 노동자전선 공동대표는 하청 노동자들의 성과 배분 문제도 비판의 화살이 삼성전자 노동자가 아니라

삼성 자본을 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에게 상여금을 주지 않으면 그거 누가 갖게 됩니까?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갑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이재용이 다 갖게 됩니다.

... 다른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 쟁취 문제는 별도로, 삼성 자본을 비판하는 것으로 모아져야 됩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창배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이 투쟁이 승리한다면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려 온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도 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성명 발표를 넘어 실질적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성과급 투쟁은 빼앗긴 몫을 찾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며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위협과 파업권 제약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더 폭넓은 연대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동훈

성명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이재명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 1년 만에 노동자 투쟁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 김민석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 자리에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가진 노동부 장관을 대동했다.

긴급조정권은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한 달간 금지시키고 강제로 중재를 하는 제도다. 5.16 군사 쿠데타 뒤에 박정희가 도입했다. 국가에 의한 파업 파괴를 제도화한 것이다.

김민석은 긴급조정권 발동을 압박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18일 사후조정 협상에서 타협적으로 나오게 만들고 싶어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통신·바이오·IT·조선·방산 등 최근 실적이 좋았던 업종 중심으로 확산 조짐이 있는 성과급 요구를 억제하고자 한다.

김민석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기도 계획을 사전에 폭로한 공으로 총리 자리까지 올랐다. 이제 김민석은 노동자들의 합법 파업에 강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협박했다.

김민석의 정치 전력을 보면 그가 노동계급과 그 운동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민석은 민주당(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초선 의원 시절 김대중과 함께 박정희의 잔당들인 김종필·박태준(포항제철 회장)과의 연합에 적극 동조했다.

그 뒤에도 김민석은 재벌들과 유착했다. 2002년 대선에서는 정몽준을 지지했고, 같은 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서는 SK그룹의 불법 비자금 받았다.

그런 자가 삼성 사용자 편에서 서서 긴급조정권 운운하며 노조를 협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진보당·정의당 같은 대형 노동운동 조직들은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이 계급 대결의 표상이 된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을 분명하게 편들지 않거나/못하고 있다.

한국노총마저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성과급 요구를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방어하고 나선 판에, 민주노총이라면 특별 노동자 대화라도 소집해 이 투쟁에 연대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민주노총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비판 같은 그야말로 그조차도 하지 않으면 '노동 단체가 맞아' 하는 소리를 들을 만한 문제에 대해서만 의례적 입장을 냈을 뿐이다.

진보당은 당 대표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소재해 있는 평택읍에 출마한 상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보당은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에 실

제로 필요한 일, 다시 말해 그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지 않고 있다. 김재연 후보는 기껏해야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과 관련 없다.

정의당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정의당은 평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 협력사와 하청 노동자들이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성과급 요구에 자극받아 '원청과 같은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 대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환원"을 제안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를 건설하자.

2026년 5월 18일
노동자연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중국 방문이 드러낸 세력 균형 변화

〈닉슨 인 차이나〉라는 유명한 오페라가 있다. 존 애덤스와 엘리스 굿맨이 제작한 이 오페라는 1972년 2월 당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반공주의자로 악명 높던 닉슨은 중국 혁명의 지도자 마오쩌둥이 냉전에서 편을 갈라타도록 설득했다. 닉슨의 후임 대통령인 민주당 소속의 지미 카터도 이 책략을 이어갔고, 이는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승기를 잡는 데에 일조했다.

어쩌면 도널드 트럼프의 지난주 중국 방문을 소재로 〈트럼프 인 베이징〉이라는 오페라가 훗날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닉슨의 방중이 미국을 20세기 말 독보적 자본주의 패권국에 등극할 수 있게끔 한 지정학적 변화에 일조했다면, 트럼프의 이번 방중은 경구가 사뭇 다르다.

그 사이 세계 경제력 분포가 크게 변했다. 1972년에 미국은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25~30퍼센트를, 중국은 4퍼센트를 차지했다. 2024년에 그 수치는 미국 10퍼센트 대 중국 30퍼센트로 바뀌어 있었다.

아이러니는 로널드 레이건과 빌 클린턴 같은 미국 대통령들이 중국의 세계 시장 편입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중국 국가자본주의를 미국에 고분고분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로 서서히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하에서 더 강력해진 중국은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거부함을 분명히 하며 다른 나라들을 중국 주도의 무역·투자 네트워크로 끌어들이고 있다. 미국은 아직 실리콘밸리를 통해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이미 전기차 등 몇몇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있고 AI와 첨단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논평가 로스 다우멧은 〈뉴욕 타임스〉에 이렇게 썼다. “유의미한 한도 내에서 실제 냉전과 견줘 보자면, 물질적인 면에서 중국은 전성기의 옛 소련보다 더 강력한 경쟁자이며, 미국의 경성 권력 위상은 아직까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대이란 도박 때문에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



트럼프는 경제와 이란 전쟁을 놓고 중국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처지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이번 방중에서 트럼프는
억박지르고 으스대는
평소 모습보다
훨씬 점잖은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는 청원을 하러
갔던 것이다**

트럼프는 2016년 첫 대선 선거운동 당시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관해 경중을 울려댔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해 관세 대폭 인상에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시진핑이 그에 대응해, 중국이 생산을 지배하는 희토류의 공급을 끊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패배시키지 못한 일은 군사기술 분야의 드론 혁명이 미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줬다.

그래서 이번 방중에서 트럼프는 억박지르고 으스대는 평소 모습보다 훨씬 점잖은 모습을 보였다.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 자 이안 총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그 장면을 이렇게 전했다. “외양과 언사 모두에서 심중팔구 시진핑이 더 강력하다는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 보답 없는 아침을 늘어놓은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얻어낼 것이 있어 애원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트럼프는 청원을 하러 갔던 것이다. 트럼프는 시진핑이 보잉 항공기와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는 데에 동의해 주기를 바랐다. 구체적인 약속은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지만 말이다. 또, 트럼프는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도록 이란을 압박해 주기를 바랐다. 이는 그 자체로 미국의 군사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징후다.

그런데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낭패

를 보며 위신과 국력을 깎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이 트럼프를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일을 대가 없이 해 줄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는가. 시진핑은 자신이 원하는 대가를 명확히 밝혔다.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이 문제에 잘못 대처하면 양국이 대치하거나 심지어 충돌해 중·미 관계 전반을 지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만을 병합해 재통일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트럼프는 대만에 140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한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은 미국에 불리하게 변하고 있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은 중동의 미군 기지 대부분을 타격했다. 대만을 두고 전쟁이 벌어질 경우, 이란보다 군사력이 훨씬 강한 중국이 서태평양의 미군 기지 대부분에 마찬가지로 공격을 할 수 있으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미국은 패권국 지위에서 밀려난 게 결코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금융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은 분명 쇠퇴하고 있다.

번역 김준호

마르쿠스 사람들이 사회가 서로 완
능전히 다른 삶을 사는 집단
으로 나뉘어 있음을 경험으로 안다.
평범한 사람들은 기업주 등 권력자들
의 주거지나 라이프 스타일에 범접할
수 없다. 그런 차이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돼 교육 환경과 일자리로 이어지
며 질병과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함께 계급 문
제가 얘기되기도 하지만, 계급이라는
용어를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몇 해 전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유행시킨 신계급사
회론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가 물려
준 조건을 극복하기 힘든 현실에 주
목하며, 계급을 세습된 특권이나 신
분이라고 보았다. 물론 부의 대물림은
계급 분단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이
기는 하다. 그러나 계급 문제의 핵심
은 출신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지
위이고, 부의 격차가 어디에서 비롯하
는가이다.

계급에 관한 사회학의 접근은 특정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몇 개의 집단으
로 나누는 것이다. 가령 소득이나 재
산을 기준으로 부유층, 중산층, 저소득
층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또는 직업에
따라 육체직은 노동계급, 사무직·관리
직·전문직은 중간계급으로 분류하기
도 한다.

현대사회에 맞는 좀 더 세련된 분류
를 자처하는 계급 모델은 라이프 스타
일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더 세분화하
기도 한다. 소득이 얼마인지, 교육 수
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 달에 외식을
얼마나 하는지, 오페라를 관람하는지,
변호사나 의사 친구가 있는지 등등을
종합해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다. 심지
어 ‘당신은 어느 계급에 속한다고 생
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기준으로
계급을 나누기도 한다.

이런 접근법들은 사회가 불평등하
고 위계적으로 이뤄져 있음을 보여 주
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의 작
동과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집단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 전혀 보여 주
지 못한다.

라이프 스타일?

마르쿠스의 계급 개념은 이와 전혀
다르다. 마르쿠스는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하면서 맺는 관계에 따라 계급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주관적으로 자
신이 어느 계급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생산관계 속
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계급



사진 출처: 삼성전자

삼성전자 파업의 진정한 쟁점

계급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김하영

이 결정된다. 즉, 생산수단(공장, 기계
등)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가 아닌가,
생산 과정에서 하는 구실은 무엇인가
(착취하는가 착취당하는가), 타인이나
자신의 노동을 통제하는가 통제당하
는가에 따라 계급이 결정된다.

자본주의는 기존의 모든 것을 혁신하
고 옛 노동 방식도 파괴했다. 장인, 상인,
농민 등 이전에 매우 다른 방식으로 생
계를 꾸려 온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발
전하면서 점점 압박을 받았다. 그중 극
소수는 자본가 계급의 일부로 편입됐고,
대다수는 생계를 위해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노동계급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통
제(지배)하는 사람들은 자본가 계급
이다. 그들은 생산수단을 그저 소유하
고 있는 것만으로 이윤을 얻을 수 없
다. 노동자들을 고용해 생산수단을 가
동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
동뿐이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 노동
력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노동계급이다. 노동력을 판
매한 대가로 그들이 받는 임금은 그들
이 생산한 가치의 일부일 뿐이고, 나

마르쿠스는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하면서 맺는
관계에 따라
계급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머지(잉여가치)는 사용자가 가져간다.
이것이 착취이다.

이처럼 두 계급은 이해관계가 서
로 충돌하는 적대적인 착취 관계를 맺
고 있다.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가 “노
동자와 자본가가 각각 자기 몫(임금
과 이윤)을 끌어 내야 할 유일한 원천”
이다. 그들은 “한쪽이 더 많이 받으면
그만큼 다른 쪽은 적게 받게 되는” 관
계에 있다.(마르쿠스, 《임금, 가격, 이
윤》) 그래서 자본가들은 자신이 고용
한 노동자들로부터 (이윤의 원천인)
잉여가치를 되도록 많이 뽑아내려 하
고, 노동자들은 자신이 창조한 가치를
되도록 많이 빼앗기지 않으려 한다.

자본 소유자뿐 아니라 고용된 경영
인도 자본가 계급에 포함된다. 그들은
생산수단을 통제하고 노동 착취를 위
한 업무를 관장한다. 국유 기업의 고
위 관리자도 마찬가지다. 고위 국가관
료도 사회적 수준에서 자본 축적의 관
리자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자본가 계
급에 속한다.

고용된 경영인

계급을 서로 유기적 관계가 없는 집
단들의 서열로 보는 사회학과 달리,
계급을 생산관계 속에서 자리매김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함의가 있다.

첫째, 계급을 생산관계 속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두 주요 계급이 자본
가 계급과 노동계급임을 알 수 있고,
그 두 집단이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착취 관계 속에서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는 끊임없이 투쟁하게 된다. 특
히,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자본가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
고자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여
이윤 몫을 늘리려고 안달한다.

반면, 사회학(특히 막스 베버)의 계
급론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 사이
의 관계를 핵심으로 보지도 않고, 적대
관계로 보지도 않는다. 베버는 계급 같
등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시장에서 분

할된 위치에 따라 다양한 집단 간에 특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것일 뿐이다.

둘째, 계급을 생산관계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보면, 계급이 객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개인의 계급 위치는 주관적 자기 규정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다. 노동계급은 계급의 식이 있든 없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이 처한 객관적 조건(피착취) 때문에 투쟁에 나서도록 거듭 내몰린다. 이런 압박에 직면해서 노동자들은 저항에 나서고 스스로 조직하며, 투쟁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힘을 자각하고 의식이 변할 수 있다.

반면, 계급을 객관적 위치보다 의식의 측면에서 정의한다면,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내재한 경향으로부터 어떤 세력이 사회를 변혁할 힘을 갖게 되는지 흐리거나 읽기 쉽다. 특히, 노동자들의 현재 의식만 보면서 노동계급에게 안녕을 고하고 사회 변혁의 새로운 주체를 찾아 나서게 되기 쉽다.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계급관은 많은 반박을 받았다. 사회학자들은 지배 계급과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의 두 주요 계급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해 복잡한 현대 사회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계급 구조가 양극화했기 는커녕 피고용자 중 노동계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중간계급의 규모가 커졌고, 노동계급 내 이질성도 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선, 마르크스가 살던 시기와 비교해 전 세계 노동계급 규모가 크게 성장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오늘날 세계 노동계급은 약 20억 명이 넘는다. 한국 노동계급의 규모도 지난 60여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다. 산업화 초기에 만 해도 압도적이었던 자영업자 비중은 2010년대 중반에는 22퍼센트로 줄었다. 반면 노동계급은 2010년대 중반 1700~18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1960년대 초반의 7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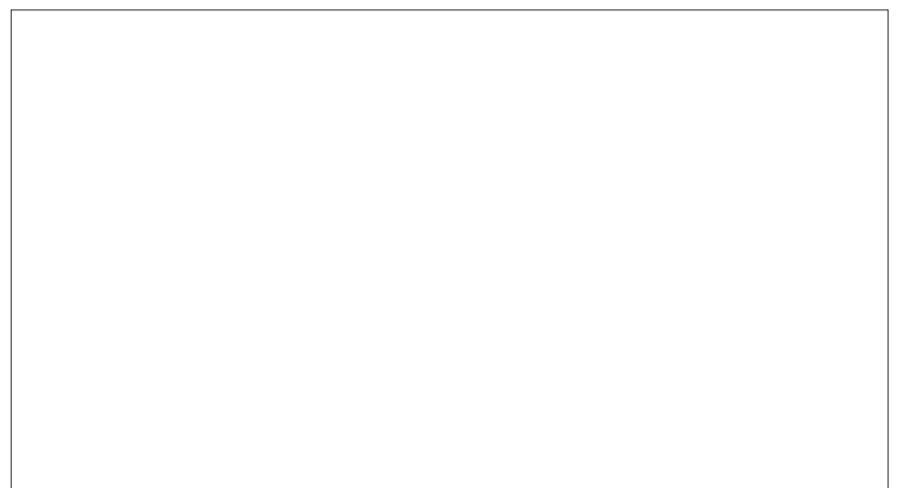
자본주의는 계속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고, 그에 따라 노동계급의 내부 구성도 변한다

계급 구조의 양극화 주장이 현대 사회에 맞지 않다는 반론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증가한 관리직·전문직·사무직 등의 일부를 노동계급으로 보지 않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미국의 급진 사회학자 C. 라이트 밀스는 관리직·전문직·사무직 등을 모두 ‘화이트 칼라’라고 불렀는데, 기술·교육·면허 증 보유 같은 시장 능력 덕분에 높은 보수와 승진을 누리는 새로운 중간계급으로 본 것이다. 한국의 많은 진보 사회학자들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 집단은 결코 단일하지 않다. 그중에는 중상층 관리자나 전문가로서 상당한 자율성과 재량권을 갖고 높은 임금을 받는 신중간계급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다수는 노동계급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문직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생기면서 마르크스가 말한 프롤레타리아화가 진행됐다. 교사, 간호사, 대학 강사 등이 그런 사례다. 의사도 그런 변화의 전철을 밟아 왔다. 개업의에 비해 취업 의사 비중이 늘고 있고, 취업 의사들은 위계적으로 조직돼 그 말단인 전공의의 처지는 다른 전문직 노동자들과 엇비슷하다.

프롤레타리아화

노동계급이 축소되거나 이질화했다는 주장은 생산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라는 본질보다는 현상에 집착한 결과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계급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대개 이런 것이다. 거친 손으로 육체 노동을 하고, 일이 끝나면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며 제대로



민족(또는 국적)을 초월해 착취 면에서 “단결!”

된 휴가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인식 방법의 문제점은 정태적 이어서 자본주의의 역동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산업과 직업 구조를 계속 변화시키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계속 기존의 전형적인 노동자상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전통적 산업이 쇠퇴하고 새로 떠오른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거나 ‘특권직’ 노동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산업의 노동자들은 흔히 기존 산업의 노동자들보다 더 세련되고 교육 수준도 높고 임금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 IT 노동자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노동자들이 그런 사례다. 수십 년 전에는 섬유 노동자나 탄광 노동자들에 비해 자동차나 중공업 노동자들이 그렇게 여겨졌다. 그러나 어떤 노동자들은 소득이 많을 수 있지만 노동계급의 일부이고 전투적으로 싸울 수 있다.

소위 ‘전통적 노동자’라는 것도 없다. 새로운 산업과 그 고용 조건도 변하게 마련이다. 한때 교사는 전문직

중간계급 또는 특권층으로 여겨졌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그들 대다수의 처지는 점점 어느 노동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게 변했다. 임금, 노동조건,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 결여 등 모든 측면에서 말이다.

계급을 사람들이 생산수단과 맺는 관계로 파악해야만 자본주의의 역동적 변화와 그에 따른 계급의 구성과 조건 변화 속에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생산관계 속에서 점하는 이런 위치 덕분에 낡은 질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

첫째,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자본가들은 노동계급을 (세계적 규모로) 창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운영이 필수불가결하게 그들의 노동에 의존한다는 점은 노동계급에게 막강한 잠재력을 부여한다. 자본가들은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자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은 이윤을 얻으려

▶ 7면에서 이어짐

면 노동자가 필요하다. 자본과 노동의 상호의존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윤 체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고 자본주의를 타도할 잠재력이 있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대규모 파업을 할 때 그런 힘이 드러나며 사회가 순식간에 위기에 빠져든다. 다른 어느 계급도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농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는 노동자들보다 더 가난하고 종종 더 고통받지만, 그들의 투쟁이 체제를 위협하지는 못한다. 차별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성이나 섹슈얼리티나 인종을 이유로 차별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특별한 힘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착취는 이윤 체제에 타격을 입힐 힘을 착취받는 사람들에게 부여한다.

물론, 노동계급에게 막강한 잠재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세력들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급은 평범한 중간계급 사람들이 처한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그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노동자 투쟁이 강력할수록 중간계급의 하층 일부가 노동자 편으로 이끌릴 가능성이 커진다. 또, 노동계급은 노동자들을 성이나 섹슈얼리티나 인종에 따라 분열시키는 지배계급에 맞서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데에 차별받는 사람들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이해관계

둘째, 노동계급은 집단적으로 조직된 계급으로서 동질적 운동을 조직하고 집단적 해결책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 자본주의는 거대 도시의 일터로 노동자들을 불러모으고 서로 협동해 생산하도록 조직한다. 자본주의 생산 자체가 노동자들에게 협동과 규율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기업주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자산이 된다. 노동자들은 대규모로 투쟁할 때,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조직하며 투쟁 기구를 만들고 통제할 수 있음을 유감 없이 보여 준다. 지역이나 산업을 넘어 전국적 규모로 조직할 능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자본주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임금 노동자로 편입시키며 동질화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자들은 오직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만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과거 파착취 계급들과의 차이이다. 농민은 각자 자기 땅에 묶여 있었고 서로 고립돼 있었으며 세계관은 협소하고 국지적이었다. 사회적 투쟁이 불붙을 때도 한데 결속하기보다는 분산적 대안을 지향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농민들을 “자루 속에 들어 있는 감자”에 비유했다.

반면 자본주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임금 노동자로 편입시키며 동질화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노동자들은 노동과정에서 서로 다른 직무를 담당하지만, 전에는 노동자처럼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여느 노동자들과 엇비슷한 처지로 내몰리며 투쟁에 나서곤 한다. 자본가들의 이윤 경쟁이 노동계급의 동질화를 촉진한다.

집단적으로 조직돼 있고 동질화하는 경향 덕분에 노동자들은 개별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 농민들은 반란을 일으켜 지주의 땅을 빼앗아 각자 나눠 경작하려 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 공장이나 병원을 쪼개어 각자 나눠 갖거나 운영할 수 없다.

셋째,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도록 내모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가 노동자 일부 계층에 양보를 해서 포섭하고 길들인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위기를 반복하는 체제로 그런 양보를 안정화하기가 어렵다. 위기가 오면 그동안의 알량한 양보조차 거둬들이고, 이윤을 계속 얻기 위해 노동자들을 한층 더 압박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 투쟁이 거듭 일어나고, 때로 거대한 사회적 투쟁으로 폭발하기도 한다.

노동자들은 일단 대규모 투쟁에 나서기 시작하면, 평소 생각과 관계없이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경향을 발전시키기도 한다. 점거 투쟁 등으로 사용자들의 생산수단 통제에 도전하고, 사용자들을 지켜 주려 경찰력을 투입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도 대결하게 된다.

어떤 조건에서는 투쟁이 급격히 확산돼 보편화될 수 있는데, 그러면 생계와 치안을 민주적으로 조직하는 기구들이 기층에서 구축되고 공공을 위해 운영되면서 기존 국가 권력과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혁명적 분출 때마다 이와 같은 노동자 권력 기관을 만들었다.

농민과 소상공인 같은 소소소유자들은 자본주의적 소유에 맞서 보통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생산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데로 나아갈 수 없다. 오직 노동계급만이 그런 구실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계급에게는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꿀 잠재력이 있다.

잠재력

마르크스는 일상적 시기의 노동자들이 혁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현재의 노동계급과 그들의 잠재력을 구분했다. 그는 착취당하는 존재 그 자체로서의 노동계급을 ‘즉자적 계급’이라고 불렀고, 노동자들이 착취에 맞서 저항하며 계급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자각할 때 ‘대자적 계급’이라고 불렀다.

노동자들이 대자적 계급으로 돼 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그것이 승리뿐 아니라 패배로도 점철된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임을 잘 알았지만, 노동자들은 오직 그런 투쟁을 통해서만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의 의식은 모순돼 있다. 한편으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 때문에 무력하고, 분열돼 있고, 개별화돼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기 계급의 이익과 충돌하는 관념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다른 한편,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공감과 연대감, 투쟁의 기억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다. 둘 사이의 모순 때문에, 노동계급 내에서 보수성이 조장될 수도 있지만, 일단 대규모 투쟁이 일어나면 노동자들은 급격히 의식을 발전시킨다.

계급을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의식으로 정의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현재 의식에 실망해 노동계급의 역할에 대한 회의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체제가 가하는 압력 때문에 노동자들은 의식과 관계없이 투쟁에 빨려들게 된다. 그리고 일단 투쟁에 참여하면, 동료 노동자들과 자신을 결속시키는 공통점을 깨닫게 되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집단적 힘을 자각하게 된다.

이때, 혁명적 좌파의 개입은 계급 투쟁과 계급 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할 수도 있다.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울 잠재력이 있는 계급이라면, 혁명가들의 구실은 그 잠재력을 현실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호황 업종 노동자들 사이에서 임금 투쟁이 확산하는 것은 마땅히 환영할 일이다

삼성전자발 성과급 투쟁, 현중 노동자도 30퍼센트 요구한다

현재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집행부는 영업이익의 30퍼센트 분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과거 불황기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으며 오랜 시간 고통받았다. 불황이라는 이유로 임금 인상 요구는 번번이 묵살됐다.

조선업은 현재 호황기를 맞았다. 많은 노동자가 불황기에 보전받지 못

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집행부 역시 조합원의 염원을 반영해 영업이익의 30퍼센트 분배 공약을 내세웠다. 최근 영업이익의 30퍼센트 분배와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포함 시 18만 4,6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해 지난 5월 20일 사측에 전달했다.

영업이익의 30퍼센트 분배 쟁취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영업이익의 15퍼센트 분배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정부와 친기업 언론이 일반 노동자와의 괴리감을 이용해 맹비난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현대중공업 노동

자들에게도 당당히 싸우면 영업이익의 분배를 쟁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다면 현중 사측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기아차 노동자 성과급은 특혜 아니다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매년 영업이익의 30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요구해 왔다.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2000년 쯤에 사용자 측이 기본급보다 성과급 비중을 늘리려고 먼저 제안한 비율이 30퍼센트였다. 노동자와 주주, 투자에 각각 30퍼센트씩 배분하겠다는 논리였다.

당시에는 이익이 적어 노동자들은 사측 제안을 거부하며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실적이 개선되자 회사는 제안을 철회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2010년대부터 사측이 먼저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30퍼센트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매년 영업이익의 15~21퍼센트 정도를 따내고 있다.

삼성은 완전히 낯감도 같다. 고작 15퍼센트 요구한 것을 가지고 난리를 파우니 어이가 없다.

전체 임금에서 성과급 비중이 상당히 높아 성과급 요구는 중요하다. 연봉의 3분의 1을 넘는 수준이다. 성과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생계에 타격을 입는다. 사실상 성과급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적자 시기에도 성과급 형태로 임금을 받았다. 낮은 기본급을 생계비 수준으로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성과급이 곧 임금인 셈이다.

삼성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기본급이 낮아 생계비 부족분을 수당으로

채운다. 형과 형수가 삼성에 다녔다.

형수는 공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로 꼽혀 이재용이 천안 공장을 방문할 때마다 늘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형은 명절에도 집에 못 오고 일했다. 하지만 형이 40대가 되자 사측은 압박을 가해 형을 내보냈다. 삼성은 40대 중반이 넘어 임금이 높아지면 압박을 넣어 해고했다.

노동자들은 그런 일을 기억한다. 그래서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최대한 받아내야 한다”는 정서가 있다.

그런데 성과가 나니 이제 돈을 못 주겠다고 한다. 도둑이나 다름없다. 7억 원쯤 받으면 어떤가.

자본가들은 어느 한 곳의 처우가 좋

아지면 다른 데도 올려 줘야 하니 노동자들을 이간질한다. 현대·기아차 사용자 측도 삼성이 너무 많이 주면 현대·기아 노동자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걱정한다. 삼성이 올려 주면 현대·기아도 어느 정도는 올려줘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이다.

성과급 1억 원을 받으면 35퍼센트, 7억 원을 받으면 세금으로 42퍼센트를 뺀다. 반면 주식 부자들은 1억 원을 벌어도 세금을 20퍼센트만 내고, 50억 원까지는 25퍼센트밖에 내지 않는다.

주주들을 동원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위협하는 행태는 이 사회가 노동자를 얼마나 천대하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김우용 기아차지부 소속 금속노조 대의원

석유화학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맞서 고용 보장 요구하다

5월 16일 민주노총 화석석유식품산업노조가 전남 여수시청 앞에서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저지! 정의로운 산업 전환! 화석식품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의 화석식품노조 조합원 3,000여 명이 모였다. 고용과 생계비 위기에 직면한 여수 지역 플랜트 건설 노동자와 화물 노동자도 함께했다.

노동자들은 '산업 위기 노동자 책임 전가', '대책 없는 일방적인 산업 구조조정'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고,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외쳤다.

석유화학 산업의 심장부인 여수에서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만, 중국과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화학 설비를 대폭 증설하며 과잉 축적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롯데케미칼, LG화학,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여천NCC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 6개사의 영업이익은 2021년 7조 1,000억 원에 달했으나, 이후 수년간 내리 수천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다. 지난해 여천NCC가 부도 위험에 빠진 것은 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지 보여 줬다.

최근에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으로 원유와 나프타(석유화학 핵심 원료)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며 그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석유화학 업계는 '깜짝 호황'을 기록했지만, 이는 이란 전쟁 전에 확보해 둔 저렴한 원료와 중



산업 구조조정에는 노동자 "고용조정"(고용 불안정화)이 따른다

국·중동 국가들의 수출 감소 덕분이라서 호황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

2분기부터는 비싸게 구입한 나프타가 공정에 투입되기 시작한다. 이란 전쟁의 일시적 '특수'가 사라지고 원가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고통 전가

호황기에 배당금 잔치를 벌인 석유화학 자본가들은 위기가 닥치자 그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다. 석유화학 업계 전반에 희망퇴직과 권고사직, 전환 배치가 확산돼,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LG화학은 2024년 생산기술직 희망퇴직, 2025년 8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롯데케미칼은 2025년 5월 장기근속 생산직 권고사직을 단행했다. 석유 화학 설비를 건설·보수하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

과 설비와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고 있다.

화물연대 여수지부에 따르면, 여수 지역 석유화학 화물 노동자들의 "월평균 수입이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급감하거나, 적자 상태"다.

화학산업단지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매우 크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인 지난 4월 2일, 화석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내하청위원회는 여수국가산단 원청의 교섭 거부를 규탄하며 고용 안정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석식품노조 결의대회에서 김성호 화석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이렇게 규탄했다.

"산업 위기를 만든 것이 노동자들입니까?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이윤을 가져간 대기업과 재벌, 무분별한 투자와 경쟁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큼니다."

이재명 정부는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을 압박해 왔다. 석유화학 설비를 감축해 수익성을 회복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들 사이의 갈등이 커져 진척이 더뎠다.

정부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금융 지원, 세제 절감, 원자재 비용 부담 완화 등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설비 감축 계획인 '대산 1호 프로젝트'에 2조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호황기에 배당금 잔치를 벌인 석유화학 자본가들은 위기가 닥치자 그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는 "기업 지원만 있고, 노동자는 없다."

이날 집회에서 김종민 화석식품노조 세종충남지부장은 이렇게 정부를 규탄했다.

"대산공단 일자리가 줄어들고,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 공동체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산업도, 지역도, 노동자의 삶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 보장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김종호 화석식품노조 여천NCC지회장은 "이번 싸움이 대정부 투쟁까지 갈 것이라는 전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민주노총 화석식품노조 2026 전 조합원 교육 영상)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자들의 고용과 조건을 지키려면 투쟁과 저항, 그리고 연대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

안우춘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부산/울산

혼돈의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일시 5월 30일(토) 오후 3시

장소 부산 하이텐 스테디룸 3층 a-sm강의실 (서면역 1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이원웅 <이스라엘의 인종청소 실패와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망> 공저자

참가비 5,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부산/울산지역모임들 문의 010-8028-8029 / busan-ulsan@ws.or.kr

삼성에 원청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

올해 350조 원 영업이익의 달성이 예상되는 삼성전자에서 임직원에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5월 12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업체들인 핸들포유, 엔젤플러스는 일방적 약관 변경으로 노동자들에게 관리비를 갈취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 대리운전노조는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원청인 삼성전자가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핸들포유, 엔젤플러스가 부당하게 빼앗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원청인 삼성전자와 위탁업체들이 대리 기사들과 협의도 없이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리 기사들은 원청과 위탁업체의 지시·통제를 받으며 일하지만 정작 노동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운임·대기·이동을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원청입니다.

“영업이익 350조 원을 내는 거대 기업이자,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과 책임을 가진 초일류기업을 자임하는 삼성전자가 ‘우리는 위탁했을 뿐’이라고 뒤로 숨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탁업체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을 중단하라는 것, 부당한 관리비와 수수료 갈취를 멈추라는 것,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라는



파견근로제 이용해 운전 기사 노동쟁의 회피하려는 삼성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오승민 대리운전 노동자는 현장의 실태를 생생하게 말했다.

“저는 삼성그룹 임직원의 콜을 수행하는 핸들포유와 엔젤플러스 소속 대리운전 노동자입니다. 엔젤플러스와 핸들포유는 타 대기업의 콜과는 다르게 삼성그룹사의 콜에 대해 특별한 지시사항들을 추가 요구합니다. 주차 자리부터 출차 시점, 또 삼성그룹사 임원의 콜을 수행하는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삼성그룹사 특별 교육을 요구하고 삼성전자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교육이나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핸들포유는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2026년 3월 1일,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약관 변경을 강행해 대리운전

수수료를 20퍼센트에서 25퍼센트까지 상향하고 약관에는 가변수수료라는 이름을 붙여 대리운전노동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20퍼센트 넘겨 이득을 취하는 곳은 수도권에서 핸들포유뿐입니다.

“엔젤플러스는 대리운전 노동자로부터 매달 프로그램 사용료와 매일 관리비를 수취해 갑니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대리운전업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인데 이를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내역을 공개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경영권이라는 세 글자로 묵살해 왔습니다.”

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은 연대 발언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협력업체를 조사하고 조치하라고 규탄했다.

“삼성전자는 핸들포유의 엄연한 원

청으로서 또 대리운전 기사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청, 협력업체가 노동자에게 최하위 노동 대우를 해도 자신과는 무관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2012년 협력업체 행동규범을 만들어 협력업체가 ILO 핵심협약을 바탕으로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협력업체가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핸들포유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리운전 협력업체들은 삼성 측의 요청이라며 여성 대리 기사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행위도 자행했다. 그런데 삼성전자 협력업체 행동규범에는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차별과 부당이익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충실히 지키지 않는 업체와 거래 중단까지 포함한다고 돼 있다.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정당한 요구에도 삼성전자 측은 노동자들의 요구 서한을 수령조차 하지 않았다. 5월 14일에 다시 한번 요구안 제출을 시도했지만 사용자 측은 서면을 전달하려는 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막아 나섰다.

삼성전자는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대리운전노조는 삼성전자가 위탁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책임지도록 계속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

김은영

▶ 12면에서 이어짐

다. 무엇보다 이란이 통제권을 쥔 이상 해협은 결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이 구상에 참여한 것은 허황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결코 미국 제국주의의 종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미국 지배자들이 자국의 위상 하락에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은 여전히 중국보다 강력한 금융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군사력 면에서도 미국은 잠수함과 해저 전쟁 분야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 반면, 미사일·우주·사이버·정찰 분야에서는 중국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CIA 동아시아 담당 국가정보관을 지낸 존 컬버가 <워싱턴 포스트>와 한 인터뷰).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을 벌인 이유 하나는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석유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재확인하는

것이였다. 이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역효과를 불러왔다. 그 결과 이제 미국은 결정적인 전환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결과를 순순히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쇠퇴하는 미국은 자국의 위상을 떠받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국가가 돼 가고 있다.

김인식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긴급**
아시아는 다음 전장이 될 것인가?
— 마-중 패권 경쟁, 동아시아, 한반도
- ★ 알렉스 캘리니코프 강연
트럼프, 제국주의의 위기, 좌파의 과제
- ★ 이란 전쟁이 촉진하는 중동의 춘추전국시대
- ★ 미국의 전쟁 지원 요구에 거부와 응낙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이재명 정부
- ★ 극우 이강산의 ‘자국민 우선주의’는 인종차별 선동이다



이란에서 복구가 어려운 전략적 손실을 입은 미국

트럼프는 5월 18일(현지 시간) “19일로 예정된 이란 공격을 단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19일 공격 계획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듯하다. 트럼프는 이란에 “2~3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으나, 이것이 협상 타결을 위한 마감 시한인지 또는 결렬 시 전투 재개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는 전에도 여러 차례 마감 시한을 제시했으나 실제 이행으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다.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중재하는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는 크다. 이란 타스님통신이 보도한 양국의 협상안을 보면, 양측의 입장은 협상 시작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트럼프는 합의 불발 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를 확대 재개하거나 이란 내 잔여 목표물을 2주간 추가 폭격하더라도 미국이 전략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작전명부터 비현실적인 ‘해방 프로젝트’는 성공 확률이 낮은 도박에 불과하다.

로버트 페이프 시카고대학교 교수는 5월 4일 서브스택에 이렇게 썼다. “이란은 지속적인 군사 작전이 필요 없다. 이란에게는 단 한 번의 성공적인 타격이 필요할 뿐이다. ... 미국은 매일 성공해야 하고 모든 선박을 보호해야 하지만 이란은 단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미국이 호위하는 유조선이 단 한 척이라도 피격된다면 그 실패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과 동맹국 앞에서 실시간으로 증명될 것이다.”

전쟁 재개와 관련해 한 달 전 트럼

프를 물러서게 한 위험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가 이란 폭격을 중단한 이유는 이란이 걸프 지역의 주요 석유·가스 시설을 타격했기 때문이다. 3월 18일이 결정적 계기였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폭격하자, 이란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 기지인 카타르의 라스 라판 산업 단지를 공격했다. 복구에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그래서 이란이 단 한 차례도 양보하지 않았는데도 트럼프는 이란 에너지 시설 추가 공격에 대한 일시 중지를 선언했고, 그 뒤 휴전을 선포했다.

신뢰의 위기

현재 미국의 이란 전쟁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누가 더 오래 견디는지를 놓고 겨루는 전략적 교착 상태다. 확전도, 종전도 아닌 휴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략적 교착 상태를 타개할 묘수가 보이지 않자 트럼프는 단순히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했을 때의 결과를 평가해 달라고 정보 당국에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합리적 선택’이라 부르기엔 이미 늦었다. 이란의 예상치 못한 저항과 생존 능력 탓에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승리 선언은 그 본질인 ‘실패’를 고스란히 드러낼 뿐이다. 이는 복구가 어려운 미국의 전략적 손실이다. 네오콘 원로 로버트 케이건은 미국 지배계급 내부의 우려를 다음과 같이 대변했다.

“미국이 어떤 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던 때, 즉 전략적 손실을 복구하거나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인

후퇴를 겪었던 때를 떠올리기란 쉽지 않다. ... 이란과의 현재 대치 상황에서 패배한다면 복구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패배가 될 것이다. 이전 상태로 회귀하지 못할 것이며, 피해를 되돌리거나 극복할 미국의 궁극적인 승리도 없다.”(〈디 애틀랜틱〉, 5월 10일 자)

미국은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패배했으나, 당시의 패배로 미국의 세계적 위상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해당 지역들이 세계적 경쟁의 주요 전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걸프 지역은 역동적인 자본 축적이 이뤄지는 핵심 요충지다. 이처럼 중요한 지역에서 미국은 불과 몇 주간 중진국과 벌인 전쟁으로 무기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고, 즉각적인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미국은 스스로 시작한 일을 매듭지을 능력을 상실하며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 결과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단순히 미국이 이란을 패퇴시키는 문제가 아니다. 유럽·걸프·아시아에서 실추된 미국의 권위와 글로벌 통제권 상실을 막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 중에 중국을 방문하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 3월 31일로 예정됐던 시진핑과의 회담을 5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5월 중순이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트럼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결국 트럼프는 베이징에서 수모를 당했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 빠진 트럼프를 돕지 않았다. 네오콘 성향의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 소속 크레이그 싱글턴은 “중국은 원칙적으로 긴장 완화를 지지하면서도, 실제로는 트럼프의 이란 정책을 떠맡으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더 크래들〉, 5월 15일 자).

파장

중국이 ‘트럼프 구하기’에 나설까닭이 대체 무엇이었겠는가. 오히려 트럼프가 이란에서 겪는 참담한 실패를 이용해 시진핑은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면전에서 경고했다. 트럼프는 답변하지 못했다. 대만은 물론 일본·한국·호주 지도자들도 불안감을 느낄 법하다. 이들은 미·중 긴장이 총돌로 번지는 상황을 원치 않으면서도, 미국이 우방국을 희생시켜 중국과 거래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할지 몰라도, 미국의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이다”라는 전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의 말을 절감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미국이 침략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자, 동맹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에 적응하며 미국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이란이슬람공화국방송은 유럽 정부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고자 테헤란과 직접 소통 창구를 개설했다고 보도했다.

그런 점에서 휴전 후 호르무즈 해협을 감시하겠다는 프랑스와 영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 임무 구상은 실없는 농담 같다. 군함의 호위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선박을 호위하겠다는 격이